

# 군산 인구 27만명도 위태...대책마련 시급

### 현대重·한국GM 철수 여파 2만여개 일자리 사라져 고용위기 속 인구 급감...지역경제 회복 기미 안보여

군산의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7만명 선이 위협받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의 철수로 직격탄을 맞은 영향이라지만 고용위기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가 밝힌 8월 말 현재 군산 인구는

27만1081명으로 지난해 말의 27만2645명보다 1564명 줄었다. 군산시 인구는 호경기였던 2012~2015년까지 27만8000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이 가동 중단에 들어간 2017년부터 급감세로 돌아섰다.

2017년 6월 말 27만6074명으로 반면 사이 1477명이 줄었고 그해 말까지 6개월 사이에 다시 1077명이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가 인구 감소세에 기름을 끼얹으며 연말까지 1년간 2300여명이 빠져나갔다. 산업단지공단에서 따르면 군산에선 협력사를 포함해 현대중공업(5200여명)과 한국GM 군산공장(1만2000여명)에서만 2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 초면 27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형 사업장의 잇따른 철수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인구 유출이 가속화 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자동차 부품 기업인 (주)명신을 비롯한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만큼 급감세가 더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장흥 수문~ 고흥 녹동 연륙교 가설 현장 지역 정치인·주민 등 100여명 결의대회

장흥과 고흥 2개군 정칙권 인사와 주민, 관계자들이 장흥 수문~고흥 녹동간 연륙교 가설 지역 현장을 찾아 연륙교 건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장흥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장흥·보성·고흥·강진지역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위원장을 비롯해 장흥군의회의원 의장, 전남도 의원 3명, 고흥군의회의원 등 2개 군 관계자 100여명이 고흥 녹동항과 장흥 수문항을 오가며 "전남 중부 해안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연륙교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김승남 위원장은 "장흥 수문~고흥 녹동간 연륙교가 건설되면 그동안 낙후지역인 전남 중남부권(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안선 연계교통망이 확충돼

상호 접근성이 빨라지고,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와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장흥군과 고흥군은 이 구간에 연륙교 공사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국도 77호선에 대한 선형변경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행정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전남도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장흥 수문~고흥 녹동간 연륙교 건설 추진은 지난 달 2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정책페스티벌 경연대회 자리에서 장흥군의회의 백광철 의원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제안'을 내면서 불이 지펴졌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 남원시, 도·농 연료비 불균형 해소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남원시가 도·농간 연료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농촌 마을에 LPG 저장탱크를 설치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최초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 마을 2곳에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 마을을 지원하고자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과 전북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작했다. 시는 오는 12월 가스공급을 목표로 8억 7000만원을 들여 LPG저장탱크를 설치한다.

공급 대상은 주생면 내동마을 35가구와 산내면 달궁마을 47가구이다. 이 마을에는 LPG 소형저장탱크와 가정마다 LPG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망이 설치된다. 가정에서는 공급된 LPG를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한다. 이와 관련 시는 저장탱크 용량에 맞게 LPG를 구매해 연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존 고무호스와 노후배관이 금속 배관으로 교체돼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원주 남원시장은 "농촌지역 에너지 사용환경이 개선돼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



남원시는 올해 처음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 지역 2개 마을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능가. <남원시 제공>

으로 연료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초가을 고창으로 고구마 캐러 오세요"

### 고창군, 테마형 시티투어 '팍팍시골버스' 운행

고창군의 테마형 시티투어 '팍팍시골버스'가 가을 여행을 시작한다. 팍팍시골버스는 21일부터 한달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초가을 선운산의 운치와 고구마 캐기' <포스터>를 주제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고창읍성 성곽을 돌며 나라와 공동체,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게 된다.

또 친환경 우렁쌀밥으로 허기를 달랜 후에는 붉은 꽃무릇이 절정을 이룬 선운산 산책 코스를 걷게 된다. 오후 프로그램 중 '고구마 캐기 체험'은 남녀노소 오감만족 체험프로그램으로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생들기름 가공공장도 찾아 지역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맛 볼 수 있다.



팍팍시골버스타고 떠나는 '초가을 선운산의 운치와 고구마 캐기 체험' 09.21~10.20 (매주 토요일) 군은 팍팍투어와 연계해 제12회 선운문화제(21일), 제46회 고창모양성제(10월 3~7일), 대한민국 온천대축제(10월2~6일) 등 가을 축제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다. 팍팍시골버스는 토요일에 익산역과 고창터미널, 일요일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광주문화예술회관 후문과 고창터미널에서 탑승할 수 있다. 군은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투어 마스터를 배치,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창군 관계자는 "무르익어 가는 가을, 다채로운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즐기길 바란다. 앞으로 팍팍투어시골버스의 코스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j@

## 익산시,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행안부, 577개 공공기관 대상 시행...고객수요 분석 만점

익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

육청, 공기업 등 총 57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평가는 사전정보공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8개 세부 지표를 점검했다.

평가단은 이번 종합평가에서 전체적으로 사전정보공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는 양호한 반면 고객만족도 등 고객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익산시는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고객관리 분야인 고객 수요분석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또한 기관 유형별 종합평가 결과 전국 시 단위 평균점수인 77.5점보다 10점

이상 높은 87.7점을 얻어 전북지역 1위에 올랐다. 익산시 관계자는 "적극 행정과 신뢰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이번 우리시의 성과는 전 직원이 협력하여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적극적인 정보공개 운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욱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상선 기자 sslee@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안전관리 실태 점검

권경엽(사진 가운데)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최근 국립공원서부사무소를 방문, 이틀간 거쳐 다도해해상 도서지역 태풍 피해 현장과 해상공원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신안군과 진도군 소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도서지역 재난취약지구와 시목야영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또 권 이사장 일행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현황과 가을 산불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했다. 현장 점검에서 권경엽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현장관리의 중요성의 인식과 재난대비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동부 **센트레빌** 상가  
**사정상 급매**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1층 상가,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 급매 - ~~9억~~ → 6억5000만원

**마지막, 300평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덕남동 임야,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